후원회소식

통권 170호 | 발행일 2005. 12. 15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식량주권사수!

- 전용철 농민을 살려내라! -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김영식 • 4 / 시 · 평 양이리랑 김수룡 • 6 / 감옥에서 온 편지 강태운 • 7 / 시 · 피흘리는 민중의 눈에 조국은 없다 김치문 • 8 / 기고 · 인권에 대한 단상 이해경 • 9 / 일본초청방문기 권오헌 • 12 / 성명서 ·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훼손한 패륜적 행위를 규탄한다. • 17 / 회원마당 정형근 • 18 / 시사만평 • 19 / 알립니다 • 20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2 / 이런일이있었어요 • 24 / 재정보고 • 31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2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세계인권선언의 사각지대

권오헌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대표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조를 통하여 국가기구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제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한 조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사각지대가 있다.

지난 11월 15일 농업, 농촌의 파탄을 막고 식량 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협상 비준저지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전용철 농민이 폭력경찰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홍덕표 농민이 전신마비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100여명의 농민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강자로부터 약자의 생명과 존엄,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의 임무를 안고 있는 국가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을 때려 죽이고, 죽어가게 했으면서도 이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는 커녕, 오히려 '집에서 혼자 넘어져 죽었다'는 은폐조작까지 하려 했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얼마전의 경찰 총수의 말과는 정반대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곳이 바로 경찰의 부자비하고 맹목적인 폭력진압현장이었다.

전용철 농민의 이같은 비통한 죽음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폭력경찰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폭력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전용철 농민을 비롯한 많은 농민들을 잇달아 죽음으로 몰아낸 것은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산 정부의 살농정책에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압력때문이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와 자유무역체제(FTA) 가속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직결되면서 이미 이 땅의 농업, 농촌은 피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농민들은 생산비에 못미치는 농사로 농가부채는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었다. 식량주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쌀마저 WTO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쌀협상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쌀 관세가 10년 유예된다고는 하지만 의무수입량은 올해 205,228톤에서 2014년엔 408700톤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우리밥상에 오르게 되었다.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의 이경해 열사의 자결에서부터 최근 정용품, 오추옥 농민이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쌀가마를 불태우면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겠다는 절실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 유화 확대와 농업보조금 지급금지 등을 결의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말한 어떠한 경우에도 생존권 수단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정면배치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생존권 사회권 박탈현상은 농민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전 정부당국은 5000억 달러 무역규모를 자랑했었다. 그만큼 국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일터도 늘어났을터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무역량과 나라의 재부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주체이며 가치창조의 주인공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창조해낸 사회적 부와 그 지배구조에 의해 억압 착취당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비정규직 노동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의 임금

을 받고 상여금이나 각종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며 부당해고의 불안정 속에 차별과 멸시, 인격모독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넘는 850만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그 비율이 더 높아 남녀차별현상도 심각하다. 기간제 노동, 파견제 노동, 특수고용직 등으로 있으면서 심지어 노동자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노동조건은 실질적인 소득격차로 이어지면서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간답게 살아 갈 최소한의 생존조건에서 내몰려 절대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퇴락되면서 마침내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 진행된 초국적자본과 그에 예속된 기업의 초과이윤전략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노동현장은 일할 수 있는 권리, 같은 일에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 단결하고 단체교섭하며 단체행동할 권리,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교육받고 문화적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미국의 강압에 따라 '한미합의' 형식으로 강행되고 있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우리민족을 적으로 하는 전력증강정책 등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미국의 핵선제 공격위협과 전쟁책동이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가 인권이라면 전쟁은 가장 잔인한 반인권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국제연합(UN)은 두 번에 걸친 제국주의전쟁의 참담함을 인류적 양심으로 반성하며 그 참혹한 불행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었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마저 겪어야했던 우리민족은 이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을 합의, 외세의 간섭 없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하기로 7천만 민족과 세계앞에 선언했다. '북의 침략으로부터 남을 구한다'는 미군강점의 명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즉각 철거했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반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에 명시된 '자결권' 정신에 반하여 이 땅에서 철거하기는커녕 영구주둔과 이북에 대한 침공과 동북아 군사패권을 목표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를 앞세워 평택 농민들이 대대로 정성들여 가꾸어온 옥토 400여만평을 동족을 죽이는 전쟁기지확장을 위해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하고 강제철거를 통보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이북을 공격하고 중국 포위의 첨단전략기지로 조성하는 것을 우리민족은 결코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 농토를 지키는 정당성과 함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성,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는데 온 민족이 힘을 모아 미군강점 60년을 끝내야할 것이다.

끝으로 세계인권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반인권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이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루어내야할 6.15공동선언시대에도 아직도 존치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한해동안 100,000여명이 남과 북으로 오가고 있으며 금강산에만 120만명이 다녀왔고 개성공단에서 남북노동자들이 만든 제품이 남녘 곳곳에서 팔리고 있는 오늘 아직도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고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의 철저하지 못한 애매모호성으로 국민 80%이상이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 수구냉전 사대매국세력이 미일 등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등에 업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한편 대북적대행패를 자행하고 있게했다. 또한 감옥엔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이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구속되어 갇혀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하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다 오히려 부당하게 구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며 대체복무제를 주장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수 1000여명이 구속되어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던 한총련 대의원들이 많게는 8년까지 40여명이 부당하게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우리는 강태운, 김성환, 염창근을 비롯한 74명의 모든 양심수 석방과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를 2005년을 넘기지 말고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눈물만 흘릴 것인가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님

눈물은 왜 나올까 이산가족상봉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최고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눈물은 기뻐도 나고 슬퍼도 납니다. 그러나 눈물은 슬퍼서 나는 눈물이 더 많습니다. 눈물은 누가 나게 하나 하고 종종 생각하였습니다. 눈물 흘리게 하는 근본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괴롭힘으로 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나 학대를 많이 해서 열두 폭 치마가 다 젖도록 보이지 않는데서 눈물을 흘려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살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밥 할 때도 딸이 밥을 지을 때는 됫박을 큰 것을 주어 밥이 넉넉했고,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는 됫박을 적은 것을 주어 늘 밥이 모자라 굶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것이 한이 되어 죽어서 새로 태어나 '됫박 바꾸어주어' 하고 늘 운다고 합니다. 인간은 내 것만 알고 남의 것은 무시 천대하는 것을보면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일본천왕의 항복 선언으로 간섭하는 놈들이 없어져 민족의 기분이 치솟아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면장 구장 주재소, 민족을 괴롭히던 인간들을 죽이려고 잡히는 대로 도끼 괭이 들고 찾아 갔으나 다 도망가고 없어 집만 마스는 것을 보았습니다.

9월 8일 미군이 인천 상륙해 미군정외 딴 단체는 인정을 안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때부터 반일 투쟁하던 애국적인 단체는 다 해산시키고 민족의 한이 가득히 쌓여있는 친일 매국노만 찾아 키워주니 해방의 자유는 순간이고 민족은 극심히 대립해 비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싸우다 일본이 패망하여 그 밑에 있던 조선은 미국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요리를 하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민족은 일제 때보다 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 때문에 평생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헤어져 살아가나>하고 스스로 묻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서 눈물을 흘리자는 것입니다.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하고 민족의 정신을 뺏기 위하여 외세는 사대외세의존, 민족허무주의를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뿌려왔습니다. 또한 민족 전통의 사상문화를 지켜온 애국자들은 다 좌익 빨갱이로 몰아 나쁘다고 교육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신이 분별을 못하게 되니 화해와 단합은 터득거리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략자 뜻대로 살아가는 얼간이 같은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으니 민족의 슬픔이 왜 오나 알만도 한데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1세기에 사는 사람답지 않는 삶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민족이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를 갈랐습니까? 같은 겨레를 <주적>이다, 우리 민족끼리 사는 것을 <이적>이라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국과 그에 빌붙은 사대매국세력입니다. 보안법도 미군정시기에 다 구상한 것입니다! 일제때부터 나라 사랑하는 사람 잡기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혼이 없어 시체라고 합니다.

혼이 있어도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면 산 혼이 아니라 죽은 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해방 후 왜 민족이 슬픔에 잠기여 있었는지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대가리가 허연 늙은이들이 제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며 욕만 나갑니다.

금강산에 가서 가족을 만나도 젊은 얼굴로 헤어져 수 십 년을 살다 백발의 쪼그랑 할머니가 되어 만나도, 또 눈물을 흘리며 헤어져야만 하는가? 죽어 땅 속에 가서야 눈물을 그만 둘 것인지 .조국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침략자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침략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얼간이를 종종 봅니다.

북은 항일무장투쟁, 행방 후에는 조국수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침략자 미국을 반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한 집안 식구가 네 밥그릇이 크다, 내 밥그릇이 적다하고 싸워 보았자 남는 것은 패가망신뿐입니다. 내부 싸움은 망하는 싸움이니 민족을 이간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어 외군이 갈라놓은 민족을 하나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애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결한다면 외군도 몰아낼 것이고 조국의 통일도 되고 정말로 기쁜 날만 다가 올 겁니다. 기쁜 날이 더디게 오는 것은 외군이 가르고 이간시킨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단결이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평화적 자주 통일이 더디게 옵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을 화목하게 살게끔 노력해야 번영 발전해 민족은 늘 기쁜 마음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기쁨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족화합에 힘써야 기쁨의 나날이 넘칠 겁니다.

그래야 눈물 없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과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돕고 기쁨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해 아들 손자에게 넘기여 주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범민련 홈페이지에도 기고 되어있습니다.

평양 아리랑

비전향장기수 김수룡 선생님

우리 님이 그리워
평양에 내가 왔다
해도 뜨고 달도 뜨고 별도 뜬
찬란한 평양에 내가 왔다

하늘에는 태양이 찬란하고
땅에는 시조단군의 홍익인간이 빛나고
한 피줄 자라난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평양에 내가 왔다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에 내가 왔다
꿈이 아닌 생시에 내가 왔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태고의 수도 고도에 내가 왔다
지난날 전쟁으로 할퀴고
통체로 관통되어
신음하고 몸부림 치던 이곳
지금은 말끔히 가시고
아름다운 꽃동산에 내가 왔다

웃음에 찬 도시에 내가 왔다
허리 띠를 조이고
고난의 시련을 겪고 웃음으로 바꾸어
천지가 개벽한 세상에 내가 왔다
오랜만에 마음을 받들어 모신
어머니 품속으로 내가 왔다
따르고 싶은 깨끗한 마음으로
모란꽃을 바치고 싶다
지난날 우리 마음을 불태우고
그로부터 60년 세월
잿더미가 된 이 동산에 내가 왔다

먼 훗날 손색없이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평양의 도시
천지개벽한 꽃동산 도시
우리는 하나되어
콧노래 부르면
영원히 찬란하여라
꽃동산 정원의 도시 평양에 내가 왔다

강태운 | 대구교90

권오헌 회장님 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겨울이 문턱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권회장님 건강은 어떠신지, 후원회

여러분도 별고 없으신지. 안부드립니다. 장기수 송환 문제로 회장님의 노고가 크신 줄 압니다. 정순택 선생님의 타계와 유골송환이라는 새로운 행사는 분단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비극의 표출입니다. 우리끼리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이러한 기상천외한 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은 자기 고향에 가서 죽을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해묵은 냉전 논리에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물음 또한 우리나라만이 가는 우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의 모든 활동은 참으로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지 못함을 한탄합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서 수감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난날 나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을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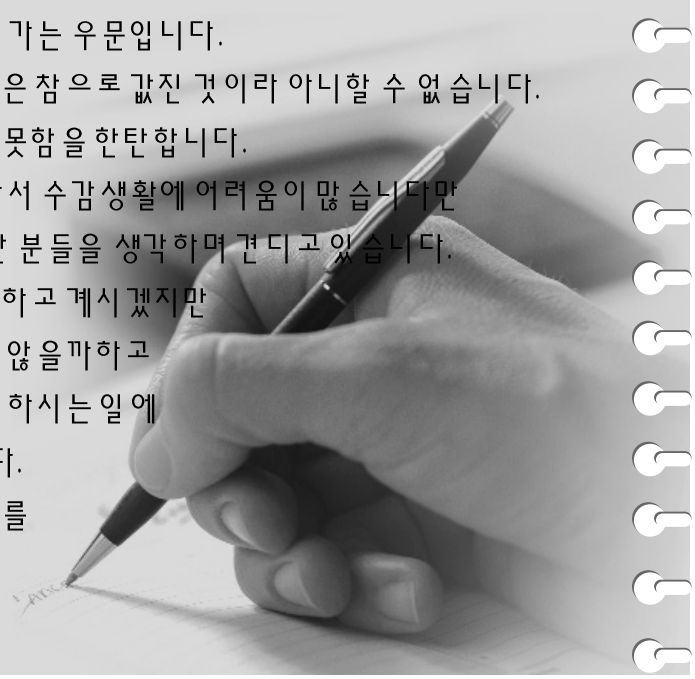
이번 년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하고

기다려집니다. 나도 빨리 나가서 하시는 일에

곁가지라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과 하시는 일에 광명이 있기를

빌며 이만 끝이겠습니다.



피흘리는 민중의 눈에 조국은 없다 2

김치문

찍어라 그래
중국에
일본에 그리고 이젠 미국에,
대대로 종노릇하는 부끄런 나라
지지리도 못난 나라 태어나게 한
죄많은 니 아비 어미다 찍어라 찍어

죽여라 그래
종노릇하는 나라 맡아서 마름질하는 놈들
고놈들 밑에서 또 종노릇하는 부끄런 집안
지지리도 못난 노동자 농민, 니 아비 다 어미다
죽여라 그래 모조리 죽여

때려라 찍어라 죽여라 죽여.
한민족 둘로 나뉘어 원수로 총부리 겨누는
칼로 저미는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같은 민족 같은 시대 한 하늘아래 숨쉬는
같은 세대 청춘들 서로 곤봉에 방패에 몽둥이로
할퀴고 헐뜯고 죽이게 한 지지리도 못난 나라
못난 니 아비 어미, 노동자 농민이다

그래, 때려라 찍어라 죽여버려라
'쌀개방 비준 결사반대!' '비정규직 철폐!'
외마디 비명으로 스스로 떨어져 간
철없는 젊은 꽃들이야 그러든 말든,
밟아라 밟아
밟으면 밟혀도 먼저 일어서는 풀이어도 좋다
때려라 때려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이어도 좋다
막아라 밀어라 으르렁거려라
갈수록 파고치는 거세찬 파도여도 좋다

아, 전.용.철.
아스라이 멀어질수록 더욱 또렷한,
결코 지울 수 없는 밤하늘 별이어도 좋다

아, 전.용.철.
찢겨져도 결코 내릴 수 없는,
펄럭이는 피묻은 깃발이어도 좋다
아아, 그대 전.용.철. 아픈 내 사랑아!

故 전용철 열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962년 충남 보령 출생
- 1979년 직장생활
- 1989년 귀농
- 2002년 보령농민회 활동 시작
- 2004년 2월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
- 2004년 4월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 2005년 11월 15일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
- 2005년 11월 24일, 새벽 6시 30분경 사망

<사망경위>
- 서울청 소속 1기동대 전투경찰들에 의해 6시경, 여의도 공원 국기게양대 부근에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17일 보령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이 확인되어, 충남대병원으로 이송, 2차례 뇌수술을 진행했으나 11월 24일, 새벽 6시 30분경 운명하심.

인권에 대한 단상

이해경 | 회원

1. 서방세계(미국을 포함)의 인권은 천사의 인권, 제3 세계의 인권은 악마의 인권인가? 미국은 주로 유럽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 그 중의 핵심은 앵글로색슨 혈통이 지배하며 원주민들(아메리카 인디언과 아프리카의 이민자를 주로 노예로 부리면서 천인공노할 인권탄압.가축이나 짐승 부리 듯 하였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1945년 이후 UN의 창설(주로 미국이 주도하며 반세기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동양의 일본 등 천부적 인권설을 계속 퍼트리며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마치 평등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현대 제국주의의 종주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큰 나라들과 아시아의 일본 및 (과거의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한통속이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과거의 식민지였던)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온다. 특히 미 제국은 온갖 종류의 제국주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의 왕?의 역할을 하며, 자국의 근로자들과 소수민족(흑인, 히스패닉, 그 외에 미유럽계 이민자들)아랍계, 아시아 계)을 차별하며 멸시하고 탄압하며 법적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부자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보석금 많이 내면 불구속하면서 돈 없고 권력없는 민중들은 마구잡이로 인권 탄압하는 현실. 결국 인권은 부자의 방방이로 유전이면 무죄로, 무전이면 유죄라는 명언을 낳게하는 현대 제국주의자의 이중, 삼중 잣대의 산물이다.

특히 미국의 집권층은 (군수재벌과 그들의 하수인인 정상배들) 인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조그만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자기 나라의 대중들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의 민중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 이중, 삼중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실이 UN이라는 무대에서도 횡행하고 있다.(중국의 인권 문제, 북한의 인권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기들은 천사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면서 중국이나 북한은 악마와 같이 인권을 탄압한다는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인권 문제을 호도하며 대외적으로도 그것을 구실로 내정간섭하며 심지어는 제도 전복이나 침략전쟁의 구실을 찾으려고 악의적으로 중상, 모략하고 있다. 이라크 현실에서 똑똑히 볼 수 있다.

2. 원래 인권이란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 내지는 신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을 떠난 인권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다. 미제와 그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친미사대주의자들에 대한 저항권을 떠난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과거 이 나라의 정권은 이승만 친미사대주의 독재, 부패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 이룩한 4,19 혁명을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은 5,16 군사 쿠데타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에게는 원래부터 인권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해 나선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과 학생, 노동자,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민주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친미사대주의 무리들과 그 추종자들은 인권을 감히 말할 자격이 없다.

5,18 광주항쟁과 수많은 광주민중과 전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탄압하여 전두환 파쇼정권의 담당자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던 무리들이 지금도 무슨 자유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떠드는 것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느낀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의 모든 면에서 자주권을 상당 부문 상실한 나라의 백성들이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인권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한미행정협정)야말로 대표적인 불평등한 외교문서이다. 세계문제에 공정하지 못한 UN에서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국가보안법조차 파쇼의 후예들이 무서워 손도 못대는 집권층에 속하는 나라들이 과연 인권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가?(이번에 UN에서 기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3. 제국주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자들은 감히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에 대하여 말 할 자격이 없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윌슨 대통령 시절부터 무슨 민족 자결이요, 인권이요, 하면서 약소 국가의 문제들을 건드렸다. 뒤늦게 제국주의 세력 다툼에 뛰어든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요, 인권이요, 보편적 가치요, 하면서 남의 나라 내정에 끊임없이 간섭하였으며 지금은 더욱더 심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 개성 간에 직통전화 가설도 못하게 막아 나서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노력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에 전체 민족이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며 교류하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서로 간에 헐뜯지 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려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미국의 집권층과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친미사대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북의 체제를 자기들 비위에 맞게 변화시켜 전복시키려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허물은 가리우고 상대방의 허물은 침소봉대하며 때로는 조작하면서 박정희 독재시대 김삿갓 북한방랑기를 재현하려고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일부 극우기독교 인사들과 국내의 친미사대주의적인 기독교 일부 인사들이 한통속이 되어, 남북대격을 부추기며 뉴라이트요, 체제수호요 하며 부르짖고 있다.

심지어는 일본이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살고 있다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헛소리들을 지껄이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있다.

민족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부 특권층들은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기네들이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며, 너희들 못사는 백성들은 못나서 못산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더 나아가 민족멸시는 제국주의의 본질이며, 일등국민(일본), 이등국민(당시 조선), 삼등국민(만주, 중국) 해 가면서, 대륙침략을 일삼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반성도 할 줄 모르며, 미군이 이 강토에 들어와 저지른 수없이 많은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셀 수도 없는 범죄행위들을 치외법권에 속하는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며 약육강식하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일방주의자들은 감히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에 대하여 말 할 자격이 없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 열 여섯이 암살을 당했는데, 단 한건도 사실이 밝혀진 일이 없는 나라, 인디안들의 죽은 시체들이 미시시피 강을 피로 물들인 나라 미국, 총기난사, 살인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가 판치는 나라, 교도소에 수감자가 가장 많은 나라,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하는 나라,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일부에서는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일부 집권층들이 남의 나라

人權

의 인권타령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친미하며 자기들을 섬겨 바치는 나라의 통치자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칠레 피노체트 등)의 인권문제는 눈감아주고 반미, 반제하며 자주권을 지키는 나라의 인권문제는 조작하며 침소봉대하여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려한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은 철면피하며 반성할 줄을 모른다.

미국의 국내 인권문제를 좀 살펴보자.

이 나라에는 전체 인구의 15~20%가 절대 빈민층에 속한다. 숫자로 보면 대략 4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굶주리며 자선단체가 제공하는 음식을 얻어먹고 추위에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들이 수없어 많으며, 의료혜택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수많은 문맹자들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카트리나(허리케인)사태에서 미국 통치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다. 현재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30%대)라고 한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대다수의 자국 국민과 세계의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신의가 없고 허위로 가득 찬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감히 인권에 대하여 말 할 자격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가 6,15 공동선언의 시대를 맞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며 북미 사이에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를 통하여 평화공존하며 북미관계를 정상화 하자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 놓고 군사적 방법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으니까 인권문제를 들고 나와 난관을 조성하며 지연전술을 쓰면서 비방, 중상하며 기회를 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음흉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서 누구나 다 같이 신체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의, 식, 주 생활에서 고통을 모르며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육받고 의료혜택을 받으며 언론, 출판, 결사, 종교, 사상의 자유를 누리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신뢰가 없고 사랑이 없는 정치 때문에 왜곡되어 말살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사상,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허위와 비방, 중상을 할 자유는 있으나 사실과 진실을 말할 자유가없다면 항상 인권을 억압받고 김삿갓 북한방랑기식의 비방, 중상을 할 때가 아니며,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4. 6,15 남북공동선언의 시대남북이 힘을 합쳐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희망찬 시대에 사는 남북의 우리 민족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휴전(정전)체제를 청산하며 이 땅에 영원한 평화와 자주통일, 번영 발전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통합의 정치교류, 협력, 화해하는 상생의 정치를 할 때, 우리들의 인권은 아름답게 꽃 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 화해하고 협력하며 통일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전쟁을 억제하려는 우리 민족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옹호세력의 힘을 미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정의 평화와 인간존엄의 굳건한 국제연대확인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와 재일양심수동우회 초청에 다녀와서

비전향장기수 김수룡 선생님

필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이하 전국회의)와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이하 양심수동우회)의 초청을 받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를 다녀왔다. 전국회의는 한국양심수 석방과 후원을 목표로 1999년 4. 27일에 결성한 민족과 국경을 넘어 정의 평화와 인권의 국제 연대 정신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양심적 일본인들의 단체이고, 양심수동우회는 재일 동표 유학생 사건으로 13년의 옥고를 치루고 일본으로 돌아갔던 이 철 님이 중심이 되어 1990년에 조국 남녘에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모임이다.

필자가 전국회의의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1998년 재일동포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김병주, 손유형, 서순택, 김장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모두 석방되면서 1976년에 결성되어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운동을 해오던 전국회의가 명예로운 해체를 하고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토대로 오늘의 전국회의로 재발족(1999년)하면서 초청을 했었고 그 뒤에도 몇차례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엔 여권내기도 어려웠고 비전향장기수 석방과 송환 등으로 틈을 낼 수 없어 죄송스럽게도 초청에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이었던 이기욱 변호사가 전국회의 결성식에 양심수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축하했으며 두 단체 사이의 국제연대를 굳건히 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번의 초청은 지난 10월 1일 민가협 공동의장과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을 역임하셨던 조만조 어머님이 서울에서 세상을 떠나시어 일본에 살고 있는 따님이시고 사위이신 민향숙 님과 이 철 님이 장례를 모시러 오실 때, 이 철 님 석방운동에 헌신했으며 전국회의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이시이 히로시(名川寬)님이 함께 오시면서 필자와 만나 이루어지게 되었다. 사실 양심수후원회로서는 전국회의와 양심수동우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 그리고 후원사업에서 두 단체로부터 물심양면으로 큰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초청에 따를 것과 함께 두 단체에 감사패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까지는 두 시간 거리였다. 필자에게 있어 일본은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먼나라였었지만 그 곳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는 Corea의 동서를 비행하여 삼척 근처로, 다시 동해를 날아 일본열도 허리를 가로질러 10시 35분 '도쿄'의 '하네다'공항

에 도착했다. 그런데 입국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필자가 머물곳(호텔 등)주소를 알 수 없었기에 공난으로 두었더니 초청자와 머물 곳이 분명치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철 님 전화번호를 공항직원에 일러주어 연락하게 했다. 그리하여 맨 마지막에야 입국 창구를 나올 수 있었다. 출구 밖에서는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동경본부 사무국 조직차장 서행대(徐幸代) 님이 필자 얼굴이 크게 인쇄된 피䵟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매우 인상이 좋으신 30대 여성이었다. 서차장의 안내로 셔틀버스로 전철역까지 가서 모노레일 순환전철을 타고가다 어디쯤에선가 다시 갈아타고 한통련 본부 사무실이 있는 역에서 내려 어느 일식 음식점으로 갔다. 음식점에는 곡동의 상임고문(6.15공동위 해외공동위원장)과 송세일 사무총장 등 낯익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통련은 재일동포 민단계 개혁그룹으로 남부 조국의 유신체제 등을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민단에서 제명되면서 '한민통'으로 활동했고 1989년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꾸어 민주화운동뿐아니라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었다. 나라안에서는 반국가단체로 규정, 그 성원들은 고국방문이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심이 되어 (특히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임종인 당시 변호사와 후원회 부회장 이기욱 변호사 등의 역할이 컸음) 사회 각계 각층이 '한통련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고국 방문운동을 벌이게 되어 2003년 처음으로 한통련성원들이 고국방문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필자도 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여했고 이기욱 부회장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분들은 필자가 일본에 오는 것을 알고 공항에서의 안내 마중과 점심시간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갑고 감사했다. 사실은 지난 8.15대축전에 참석했던 송세일 사무총장으로부터 비공식 구두초청을 받은 일도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가까이 있는 본부 사무실에 들려 해외에서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께 마음 속 감사를 표했다.

사무실을 나와 전국회의에서 마련한 '우에노'공원 근처에 있는 기누야호텔로 갔다. 송세일 사무총장 님이 안내해 주었다. 일본 방문의 주요 행사인 전국회의집회시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어 호텔에서 피곤을 풀기로 하고 송총장은 돌아갔다. 호텔 방은 크지 않았다. '우에노'공원 속에 있는 호텔인 것 같았다. 호텔 뒤에는 京城上野池가 있었다. 이 연못을 포함한 우에노 공원이 바로 눈 앞에 있었다. 공원을 둘러볼까 하다가 지난밤 잠을 세시간 밖에 못 잔데다 새벽 5시부터 이제까지 계속 지하철, 비행기, 또 전철 등에 몹시 피곤하여 1시간 반 남은 시간을 쉬기로 했다.

5시 약속시간에 송 총장과 전국회의의 '와다나베 히즈오'(渡辺一失)대표님이 호텔에 오셨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택시로 '집약집회'장소인 文京區民센터로 갔다. 근처에서 간단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2005년 전국운동의 집약집회'장소로 들어갔다. 집약집회라지만 수백명이 모이는 아외가 아니라 문경구민센터 건물의 크지 않은 방이었다. '분단 60년을 끝장내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내집회는 이시이 히로시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와다나베 대표님의 대회사가 있었다.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일본방문(전국회의)을 환영하며 강연을 듣게 되어 감사함과 한국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회의는 양심수후원회와 연대하여 두 단체가 지향하고 목표로 하는 임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다음은 사회자의 2005년 전국운동의 보고가 있었고 이어 오늘 집회의 사실상 중요 순서이기도 한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으로서의 필자의 강연이 있게 되었다.

필자는 민족과 국경을 넘어 정의 평화와 인간 존엄의 국제연대 정신으로 한국양심수지원사업에 헌신해 온 전국회의 와다나베 대표님과 성원들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국회의의 중요 행사에 초청해 주시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관계, 일제 패망과 민족해방과정, 새로운 외세에 의한 분단과 남북대치의 냉전시대, 외세를 등에 없은 역대 권위주의 통치의 억압속에서 민주화 운동과 자주통일운동, 사회진보와 생존권 투쟁을 해 온 과정, 그리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 반통일 악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방과 악법철폐운동,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 결성과 석방,

후원사업,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등을 요약하여 이야기했다. 또한 Corea 민중들이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반외세 자주화운동을 벌여 왔듯이 일본 민중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일 · 미 군사동맹체에 반대하여 파탄내야하며 한 · 일의 민중연대 힘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야한다고 했다. 통역은 오오하다 마사키(大畑正姬)님이 맡아 해주셨다. 한일민중연대 관계로 서울에 자주 오시어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한국에선 가토 님으로 잘 알려져 있음)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 발표가 있었다. 모두가 정의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는 진지한 모습들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서울에서 준비해 간 '감사패'를 '와다나베' 대표에게 전해드렸다.

집회를 마치고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우리 식의 뒷풀이가 있었다. 마침 이 시간에 '재일 아시아 노동자와 함께 싸우는 회'에서 일하고 있는 '히라노 료코'(平野良子)님이 오셨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중이었다고 했다. 얼굴 모습이 16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히라노'님은 1979년 Corea에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 사건이 터져 70여명이 구속되자 일본에서 '남민전 구원회'를 결성, 석방과 후원활동을 해왔던 분으로 1988년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되자 1989년 마지막으로 서울에 와서 구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간 일이 있었으며 여러차례 서울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남민전 관련 동지들과 가족들이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었다. 뒷풀이는 지향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국적을 넘어 진한 우정과 기쁨을 나누며 질펀하게 이어졌다. 이시히 히로시 사무총장은 맥주, 일본소주, 일본정종 등 여러 술을 주문하고 술병을 갖고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권했고 필자는 몇가지 술에 흠뻑 취해 있었다.

마치고 와다나베 대표님이 또다시 호텔에 까지 바래다 주시는 친절을 보여주셨다.

26일 아침 식사는 8시에 예약돼 있었다. 식사전 바로 옆에 있는 '우에노'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조성된 지가 오래였기 때문인지 나무들이 우람했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넓었다. 서울의 탑골공원, 종로공원, 여의도공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원안에 동경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동경예술대학 대학 미술관, 일본예술원, 동경예술대학 주악당, 국제아동도서관, 동경도 미술관, 동경문화회관 등 수많은 문화시설이 있고 전시회, 강연회 등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줄 알았으면 일찍 일어나 보다 많이 둘러보았을 터인데 아쉬움이 컸다. 그런데 부유하다는 일본에서도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공원안 여기저기에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고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빈 술병과 음식쓰레기가 이 고풍스러운 공원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었다.

9시 30분 정확하게 와다나베 대표님이 호텔 로비에 와 계셨다. 오늘 필자가 '오사카'로 가는 신간선 '도토쿄'역까지 안내해 주시기로 했었다. '우에노'전철역에서 '도쿄'역까지는 멀지 않았다. 와다나베 대표님은 도쿄- 신 오사카 행 신간선 열차 차표를 사오셨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이 철 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라며 도시락 2개와 생수까지 준비해 주셨다. 10시 56분 열차가 움직일 때 까지 계속 손을 흔들어 아쉬움을 표했다. 정이 철철 넘쳐 흐르고 친절한 모습 긴 여운을 남게 했다. 고등학교 교장선생이셨다가 정년퇴직하고 '도쿄'교외에서 내외분이 무공해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했다.

신간선 고속 전철은 '도쿄'역에서부터 매우 빨랐다. '도쿄'역 바로 발 밑에 있는 '시나가와'역에서 잠깐 서고 계속 속도를 내달렸다. 필자는 조금은 피곤했지만 이 낯선 나라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계속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또다른 뜻밖의 관행(?)에 놀랬다. 열차 안에서 많은 승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로 옆자리 손님, 그리고 앞자리 손님이 잇달아 담배 연기를 내뿜어 나는 참으로 고통스런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다. 열차는 대부분 도시화된 해안가를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들은 대부분 1, 2층짜리 일본식 개인주택인 듯 싶었다. 지진 때문인지 모른다. 경부선 타고 가면서 보이는 자연조건과 관계없이 들쑥날쑥 지어진 아파트 군상과는 비교되고 있는 모습이다. 열차 안 전자계시판에는 방송과 함께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날씨와 뉴스가 나타나고 있다. 오다와라역, 미시마 역을 지나는 동안 필자의 지리개념으로 후지산이 확일시되는 높은 산이 머리에 흰눈을 이고 멀리 보였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3700m가 넘는 사화산이다. 시주오카 역도 멈추지 않았다.

일본은 지금이 단풍계절인 듯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빨간 단풍은 아니었지만 산들은 울창한 숲과 함께 갈색 단풍으로 불타고 있었다. 열차는 일본 동해안을 따라 가다가 아이지현 나마고와리 시에서 부터는 내륙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곧이어 나고야 역에 도착했다. 도쿄를 떠난 지 두 번째 멈춘 역이다. 이제까지 계속 이어진 거대한 도시를 달려온 느낌이다. 큰도시 중심에는 고층 건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택은 위에서 말했듯이 2층 규모 일본식 단독주택이 지배적이었다. 말끔하고 안정된 모습이기도 했다. 나고야 역에서는 많은 승객들이 내렸다. 열차는 다시 달려 매우 큰 호수가를 지나고 있다. 일본에서 제일 큰 내륙호수 비파호 인 듯 싶다. 소양강 댐 호수보다 더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인공호가 아닌 자연호수로 알고 있었다.

곧 쿄오토 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도시화된 곳을 계속 달려 목적지이자 동해 신간선 종점이기도 한 신 오사카 역에서 내렸다. 오후 1시가 좀 지났다. 플랫홈에 민향숙 님과 스미 다니 (일본인. 조만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서울에 오시어 만났음)님이 마중 나와주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쿄 역에서 와다나베 선생님이 도시락을 사주셨기에 이것을 먹자 했으나 스미다니 님이 굳이 점심을 사겠다하여 신 오사카 역 지하 음식점으로 가서 '샤브샤브'로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 동안 이철 선생님과 통화를 했다. '아리랑'상영 때문에 역에 못나갔다며 극장으로 오라고 한다. 식사를 마치고 택시로 중앙구 의 오사카 부립 노동센터로 갔다. 극장 입구에서는 이철 선생을 비롯한 '양심수동우회'여러분들이 관객을 맞느라 바빴다. 이 철 선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했다. 오늘 하루 양심수동우회에서 이 극장을 빌려 영화 '아리랑'을 상영하고 있었다. '아리랑'은 1926년 조선 영화의 선구자 나윤구 감독의 아리랑을 2002년 이두용 감독이 나윤규 감독 탄생 100년 맞아 다시 만든 작품으로 2003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상영된 영화였다. 오늘 오전 11시와 3시, 6시 세 차례 상영된다고 했다. 상영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에 마침 잘 됐다 싶어 했으나 이 철 선생이 저녁 6시 상영을 감상해도 괜찮으니 오사카에 오셨으면 오사카 성을 낮에 가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그러하기로 했다. 최성룡 님이 선뜻 나서 안내를 했다. 오사카 성은 극장에서 택시로 기본요금이 조금 더 나오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 성에 대해 긴 말은 할 필요가 없지만 어쨋든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가 천하를 통일하고 대규모 축성공사에 착수, 장대한 성곽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성은 '히데요시'가 죽고 17년 지난 1615년 오사카 여름 전투에서 불타고 말았다. 그 뒤 장군 '히데타다'는 1620년부터 대규모 개축공사를 하여 10년만에 완성했지만 그 뒤 명치유신때 까지 '천수각'이 여러번 불탔고 그 뒤 1997년에 오늘의 오사카 성으로 완성되었다고 한다. 오사카 성은 제일 높은 곳에 8층 규모 천수각을 중심으로 여러 겹 성채와 성을 둘러싼 내호, 외호의 이중 연못을 파 수비에 대하고 있었다. 성을 쌓은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집채만 한 바위가 많이 보일정도로 우람했다.

일본 봉건 영주들이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착취하여 이 거대한 성채를 이룩했는지 상상하게 된다. 최성룡 님은 동지사 대학원을 나온 분으로 특히 역사에 밝아 '오다 노부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구가와 이에야스'시대와 그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천수각 8층까지 오르면서 성에 대한 정보, 자료,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 유물과 전망대에서 오사카 시대를 둘러보기도 했다.

6시에 맞춰 극장에 돌아와 마지막 상영을 감상하게 되었다. 나는 사실 부끄럽게도 일제에 저항하여 만세를 부르다 탄압받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항일정신 한 단면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이 영화를 외국에 그것도 일본에 와서야 처음 보게 되었다. '아리랑 민족'의 자주정신을 다시 새겨 본다. 주최 측에서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에 갈무리한 삼계탕 한 개씩을 그대로 주고 있었다. 서울의 북녘 어린이 빵공장 사업본부에서 보내왔다고 한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주최 측과 동호인 등 40여명이 가까운 음식점에서 뒷풀이를 하게 되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리가 나왔다. 그리고 다같이 건배를 했다. 이 자리는 '재일 양심수동우회'중요회합이기도 했다. 동우회, 이종수 님 사회로 이 철 동우회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오늘 '아리랑'상영에 함께 애써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양심수동우회는 분단 조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고난당했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양심수가 석방되는 그리고 갈라진 조국이 하나 되

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했다. 또한 고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양심수후원회 대표의 일본방문을 환영한다며 필자를 소개했다.

필자는 인사말에서 양심수동우회여러분의 초청으로 이렇게 뜻있는 만남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며 여러분께서는 외세와 분단시대 해외에 살면서 조국이 하나됨을 염원해 온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되어 오랫동안 조국땅에서 수난을 겪었던 아픈 상처를 딛고 오늘 이처럼 조국사랑정신으로 자기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대해 존경을 표했다. 특히 양심수동우회가 중심이 되어 시화전을 비롯한 여러 모금사업을 벌여 고국에서 양심수 석방과 후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큰 성원을 해주신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해간 감사패를 이 철 대표님에게 큰 박수 속에 전해드렸다.

이어 함께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와 의견 말씀이 이어졌다. 이 모임엔 양심수동우회 회원 말고도 동우회와 함께하는 일본인들도 많았다. 민족과 국경을 넘어 사회정의와 민중정신으로 연대하고 있었다. 석방운동과 후원을 해왔던 분들이 많았다. '야마다' 선생님은 손유형 선생님 구원회에서 활동했었고 이시이 히로시(전국회의 이시이 히로시 사무총장과 같은 이름)선생은 고성화 선생님을 후원하며 면회를 다녔고 고성화 선생님의 '통일의 한길에서'를 일어로 번역하고 있다 했다. 민주당 의회의원 노무라 이구요(野村)선생과 전일본 철도노조 총연합회 후아야마 모리오(舟山守夫)부의장 등 여러분이 함께 했다.

1차 뒷풀이가 끝나고 다시 2차를 하기 위해 승용차에 나누어 탔다. 주로 양심수동우회를 이끄는 분들이었다. 도착한 곳은 동우회 최성룡 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음식점 '민들레'였다. 이미 11시가 지나고 있었지만 굳이 구수한 닭찜을 비롯한 순수 조선음식이 나왔다. 무엇보다 김치가 있어 반가왔다. 주인이신 최성룡 님을 비롯하여 이 철, 민향숙, 유영수, 김영희, 윤민철 님들과 일본인 몇 명이 함께 했다. 우리말과 일본말이 뒤섞여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틀동안 일본에 있는 동안 김치를 맘껏 먹어보기 처음이었다. 조선 음식만 나오는게 아니라 진로 소주도 있었다. 왜 그리 반가웠는지 모른다. 피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12시가 다되어 마치고 필자는 유영수 님 댁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오사카 칸사이 공항까지를 유선생님과 함께 하기로 되었었다. 승용차로도 꽤 오래 걸려 아파트에 도착했다. 유영수 님 (56살)은 1977년 봄. 부산에 유학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언도까지 받아 서울 구치소와 광주교도소 등에 갇혀 있다가 1984년에 석방되었다.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35일간 계속 잔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1980년엔 광주에서 광주민중항쟁을 맞기도 했었다. 부인 김영희 님 또한 이른바 '거문도 사건'에서 불고지죄를 적용받아 3년 4개월 옥고를 치루고 나와 옥중 동지로 결혼하게 되었다. 일본으로 돌아온 두 분은 평화를 지향하고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했던 체험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이상을 공유하면서 한국전통음식점 '옛터'와 '샘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거실에는 김영희 님의 옥중 동지였던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되었던(1979) 한명숙 의원(전 여성부 장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 철, 민향숙 님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결혼(명동성당에서 김수환추기경 주례로)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듯이 유영수 님 가정 또한 옥중 동지들이었다.

서울에 돌아올 날이었다. 김영희 님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직접 담갔다는 대추 김치로부터 마른 북어를 넣어 끓인 콩나물국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특히 술국으로 그러했다. 우리이 전통음식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듯 싶었다. 두 분과 함께 승용차로 오사카시 淀川區에 있는 '샘터'로 갔다.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오후부터 영업을 한다고 했다.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야채를 사왔다. '샘터'의 현판 글씨는 서예가로도 유명한 이 철 님의 글씨였다. 그 앞에서 두 분과 함께 기념 촬영도 했다. 그리고 두 분은 굳이 칸사이 국제공항까지 환송해 주셨다. 결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은 동포의 정과 인간적 연민을 갖게 한다. 일본체류 50여 시간에 정신 없을 정도로 많은 풍물을 보고 여러분을 만났지만 이것으로 동포사회의 속내를 알고 일본의 풍물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나는 비행기안에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한국 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전국회의 여러분의 고마운 모습과 통일조국과 민족존엄을 지키려 여러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는 양심수동우회 분들의 자랑스런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훼손한 패륜적 행위를 규탄한다.

한 평생 사상의 자유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지키는 댓가로 햇볕한줌 채 들지 않는 0.75평의 독방에
서 살다 돌아가신 비전향장기수들의 묘역이 무자비하게 파손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일어났다.

극우잡지 미래한국에서 시작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으로 이어져 오면서 '간첩빨치산이 애국투사' 라는 제목으로 사설과 칼럼으로 신문지면을 뒤덮으며 파주 보광사를 색깔공방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급기야는 HID국가유공자 파주본부동지회 소속 회원 등에 의해 묘비가 발로 채여 넘어지고 해머로 비문이 절단되고 페인트로 낙서칠이 되고 유골까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조국의 운명이 그러하듯 비통한 운명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유골로 묻힌 보광사 연화공원이 왜 이렇게까지 파손되어졌는가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사건 또한 강정구교수사건과 맥아더동상논쟁과 같이 우선 수구언론들과 수구단체들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적인 행동들이 돌출되고, 한나라당의 정치쟁점화속에 국가정체성 공방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거치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를 진정으로 전복하고 국가정체성에 혼란을 가하는 세력이 정말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다. 친일파 장군 김창룡묘에 가선 대낮에 떳떳이 절을 하면서, 통일조국만을 바라다 고문과 감옥살이로 얻은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신념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못할망정 겨우 응달진 곳을 피해 묘도 없이 뿌려진 유골을 파헤쳐내는 그런 패륜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부추기는 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분단고착화인가 조국통일인가 아니면 615공동선언파탄인가 615공동선언실현인가? · 반공이데올로기의 노예 속에 평생을 살다가 통일시대의 사생아로만 살아갈 것인가 ?

양심수후원회는 비전향장기수를 '양심수' 로 규정하고 석방운동을 벌였었고 실제 이 분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양심수' 로 인정받았으며 전원 석방과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었다. 또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성숙해진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자신과 사상과 정견이 다르다고 해서 행패를 부리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부관참시의 패륜을 지르는 일들이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의 정의와 양심에 비쳐 묵과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하며 이를 부추기는 음흉한 배후 또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은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 송환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8일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정형근 | 회원

추운겨울이 다가와 몸도 움추려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나는 3년전 겨울 노무현의 당선을 위해 노사모에도 가입하였고 얼어붙은 손을 호호불면서 열심히 주위사람들에게 노무현의 진면목을 알리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던날 나도 민주화의 성지 도청분수대에서 기쁨과 대동의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노무현이 당선되면 미국에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대통령에 되겠다고 하는 말에 또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나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아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미국의 한마디 말에 바로 더러운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고 이라크에서 자기 국민하나 지키지 못하고 간절한 그의 눈빛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겨울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철폐를 위해 단식농성을 할 때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외면해 버렸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과반수의 의석을주었는데도 그렇게 수구세력들이 무서웠나요. 권력의 기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초심의 마음을잃어 버리나요.

당신은 엊그제 우리 생명이자 뿌리인 농업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 현장에 당신의 하수인들이 친절하게도 아주 친절하게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를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의석으로 아주 쉽게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구국의 강철대오<전대협> 출신의원들이 이번에 전부 찬성표를 던졌더군요.

당신들 투표하기전 한번이라도 농민들의 피끓는 분노를 생각해 보았나요. 나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때 전교조 선생님들의 억울하게 학교를 떠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부조리한 사회현실에 관심을갖게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나름대로 학생운동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청년운동을 하면서도 군사정권에 맞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웠고 그 책임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학생들도 자기 자신들을 버리고 싸우는 당신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분명 당신들은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제는 그 국회에서 힘들고 지친 서민들을 위해 더 좋은 우리조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신들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당신들을 믿었던 우리들에게 배신의 칼날을 우리 가슴에 꽂았습니다. 오영식이라는 사람은 아예 단상까지 나와 여당의 충실한 방패역할을 하더군요. 더 화가 나는 건 노무현의 폭력경찰이 두들겨 패서 농민이 죽었는데 오영식은 경찰에겐 책임이 없다고 앞장서서 두둔을하더군요.

당신들은 초선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뒤에는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의장님. 회장님이라고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의 허탈감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들을석방시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에서 어머님들은 보라색 수건을 쓰고 목요집회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권오헌 회장님, 임기란 어머니를비롯한 민가협 어머

니, 어른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결코 우리들이 석방운동한거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마지막으로 사람은 초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결심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제발 권력의 눈치를보지말고 힘없는 서민들

편에서 의정활동을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 경남도민일보 2005년 11월 5일

국제신문 2005년 10월 17일▶

알립니다

2005 회원 송년회

2차 송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정순택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12월 국가보안법 끝장을 보지 못해 고령의 강태운 선생님께선 아직 도차가운 감옥에 계시고,
강정구 교수님 필화사건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명같은 나락을
태우며 길거리로 나섰고, 노동자,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한 해 동안 노동자로, 농민으로, 여성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서로를 다독여주며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은 우리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우시더라고 꼭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년 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던 회원, 오래 소원했었던 회원, 좀 쑥쓰러울 신입 회원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간 : 12월 18일 (일) 오후 12시
■장　소 : 새서울 주물럭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세종문화회관 뒷편)

2006년 1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안내입니다.

■일　시 : 1월 10일 (화) 오후 7시
■장　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
■작품명 : 민족과 운명 제48부 (어제, 오늘 그리고 래일편 제1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001년제작, 96분상영)
■줄거리 : 애국과 반역은 곧 혁명적 신념을 지키는가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 한 영화이다. - 김일성종합대학 동창생인 송숙, 분희, 경심은 오랜만에 만난다. 그러나 분희는 시집에서 나오려는 상태이고, 경심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태이다. - 과거 검찰이었던 경심은 송숙의 남편, 농업과학원 연구사인 준하가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동한다. 또한 경심은 준하의 일중에 미심쩍었던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마음먹는다.
※ 문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12월 산행

■가 는 곳 : 북한산　　■일　시 : 1월 15일 (일) 오전 10시
■모이는장소 : 평창동 북악호텔 앞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

-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5년 12월 15일 현재
노동자, 농민, 재야 등 총 74명, 양심적병역거부(1186명. 9월 15일 현재)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크레인시위"	05-05-17	업방, 폭력	1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16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4-08	업방, 폭력	1년6월+1년	2007/11	부산구 6019	기결
박해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05-07-05	업방, 폭력			부산구 6060	미결
윤종선	노동자	금속노조하이텍알시디	산재인정 투쟁	05-08-17	특공, 집시	8월	상고중	영등포구 3483	미결
윤태수	노동자	금융노조(조흥은행)	구조조정 반대	05-09-08	폭력			서울구 18	미결
김소연	노동자	기륭전자 노조	비정규직철폐농성	05-10-17	건조물침입등			영등포구 4069	미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2005/12	청주교 65	기결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파업	05-10-04	특공, 치상			수원구 309	미결
이상언	노동자	기아차비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파업관련	05-11-23	특공, 치상			수원구 302	미결
이형전	노동자	덤프연대(대구)	10.13 총파업	05-10-28	업방 등			대구구 518	미결
강동열	노동자	덤프연대(서남)	10.13 총파업	05-10-18	업방 등			영등포구 3411	미결
장종익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관련	05-10-27	업방, 집시			순천교 264	미결
박상욱	노동자	민주노총(전남동부)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관련	05-11-08	업방, 집시			순천교 102	미결
김용직	노동자	민주노총(충북)	하이닉스 노조 집회 등	05-06-13	집시, 특공	1년6월	상고중	청주교 252	미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8월	상고중	부산교 906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2006/04	대전교 1959	기결
박용규	노동자	(주)동진이공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6-29	공방	8월		경주교 376	기결
엄기준	노동자	(주)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대회(11.9)	03-12-10	집시, 폭력	1년6월+2년6월	2007/12	대전교 2999	기결
이희석	노동자	통일중공업 노조	노조활동 관련	05-09-27	업방, 집시	6월		마산교 1530	미결
신재교	노동자	하이닉스 하청노조	노조활동 관련	05-10-21	집시, 폭력			청주교 726	미결
하정기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철폐투쟁	05-12-05	업방, 집시			울산구 9	미결
이상철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투쟁결의대회 관련	05-10-27	업방, 집시			순천교 326	미결
한성기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370	미결
김종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투쟁결의대회 관련	05-10-20	업방, 집시			순천고 142	미결
구희수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375	미결
한승철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투쟁결의대회 관련	05-10-27	업방, 집시			순천교 230	미결
김재섭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267	미결
정광근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439	미결
신문석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318	미결
박종삼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213	미결
박정훈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278	미결
백성진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182	미결
오용수	노동자	현대하이스코 비정규노조	비정규직대량해고반대농성	05-11-05	특공, 치상			순천교 367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2006/11	부산교 1406	기결
박종철	노동자	GM대우차(창원)	비정규직 철폐투쟁	05-09-30	특공, 업방			마산교 2166	미결

김학철	노동자	GM대우차(창원)	비정규직 철폐투쟁	05-10-11	특공, 업방			마산교 1747	미결
이태문	농민	전농(남해)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치상			영등포구 3493	기결
김종교	농민	전농(순창)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치상			영등포구 3429	미결
나현주	농민	전농(의령)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치상			영등포구 3416	미결
정상수	농민	전농(충남)	쌀개방안 저지시위	05-10-25	집시, 방화			영등포구 3491	미결
박안영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95	미결
신재표	농민	전농(해남)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화염병			영등포구 3402	미결
전욱용	일반	개인	북한 방문	04-11-18	국보	3년6월	2008/05	서울구 29	기결
이승규	재야	다산인권센터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28	병역법			김천교 569	미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1-02	병역법	1년6월	2006/05	대전교 800	기결
문상현	재야	사회당(서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7-19	병역법			청주교 844	미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출소자모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04-06-20	특가법	1년+6월	2006/02	춘천교 45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주)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09-08	병역법	1년6월	2006/03	영등포구 2579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4-12-01	병역법	1년6월	2006/06	충주구 654	기결
최 진	재야	작은 누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6-28	병역법	1년6월	2006/12	청송제2교 132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03-08-15	국보	6년	2009/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1-28	병역법	1년6월	2006/07	충주구 865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상도동)	04-01-19	공방, 폭력	2년	상고중	서울구 76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거반대	05-02-17	집시, 폭력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8	미결
남현희	재야	전철연(십정동)	청와대앞 1인시위	05-07-04	집시, 폭력			서울구 74	미결
이영자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157	미결
이재남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03	미결
서창석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0	미결
정창윤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58	미결
김학명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15	미결
방영철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6	미결
김정덕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0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20	특공, 공방			수원구 414	미결
강재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21	미결
유경렬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수원구 348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5-03	화염병, 치사			수원구 339	미결
지광호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반대	05-06-08	폭력, 화염병, 치사			수원구 317	미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2-17	병역법	1년6월		의정부교 1550	기결
김영식	학생	중앙대	11.15 농민대회	05-11-15	폭력, 특공, 치상			영등포구 3441	미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5-05-17	병역법		상고중	서울구 2322	미결
최장식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2-05	특공			인천구 5006	미결
김재경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1-17	특공			인천구 5016	미결
송종찬	노동자	민주노총(대구)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1-11	특공			인천구 5005	미결
채봉석	노동자	한국게이츠 노조	맥아더동상철거 관련	05-11-17	특공			인천구 5009	미결

01

용산 미 8군 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면죄부 주한미군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두 어린 여중생을 죽게 한 미군 장갑차 운전병도 무죄, 우유 배달원 김명자 씨를 죽게산 미군 트럭 운전병도 무죄, 이 땅이 미군의 살인운전 연습장이냐 규탄하고 주한미군 철거를 촉구하다.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통일뉴스> 창간 5주년 기념식이 열림

'KAL858가족회'와 'KAL858시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건의 수사, 재판 기록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주범으로 지목된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의 공작원이며, 안기부에 의해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재차 주장함.

02

청와대 부근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파병재연장 추진 및 자이툰 부대 장기주둔 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 이규재 범남본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 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과 여야정장 및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다.

국회 본관 귀빈식당엣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순회 심포지엄 서울행사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되다. 올바른 과거청산 범국민위원회와 고진화 의원실, 손봉숙 의원실, 이영순 의원실, 임종인 의원실, 정창래 의원실 등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복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여는말에 이이화 범국민위원회 공동의장, 권오헌 과거사법개정 특위 위원장과 공동주최 의원들의 격려말이 있었고, 1부는 과거청산의 현황과 과제(김희수 집행위원). 국가 범죄와 배상적 정의(이재승 국민대 교수), 국가 폭력피해자의 보, 배상에 대한 성찰(정호기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정근식 교수-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배, 보상정책(김영수 경상대 사회과학원 연구원) 등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국회의원 회관 정원에서 과거사법 특별위원회 개정투쟁과 관련 집행간부들의 간담회가 있었음.

서울역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의실에서 제39차 상임대표자회의를 열고 민족민주열사 공원건립 문제 등 논의하다.

일본 평화헌법 공표일(11.3)을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평화헌법개정 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일본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한일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림.

03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92회 목요집회 열다. 이날 집회에는 아시아 NGO활동가대회에 참가한 재중, 재일, 재독 NGO대표단 등도 함께하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 노동자들이 관련 단체와 기관들과 확약서에 합의하고 크레인 고공농성을 풀다. 박정훈 지회장, 금속노조 김창환 위원장, 순천시장,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장, 사내하청업체 대표, 한국노무법인이 참가하여 사내 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들 우선 취업, 노동법에 따른 노조활동보장, 이번 사태로 인한 민, 형사상 문제 최소화 등 확약서에 합의하고 11일만에 61명의 노동자들 농성을 풀다. 노동자들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등 5개 경찰서에서 분산조사 받고 있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문경식)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쌀비대위)는 여의도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쌀협상안 국회 본회의 비준처리를 저지키 위해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선포하고 2차 농성에 돌입. 이후 농민대표자들의 무기한 농성투쟁과 11월 11일 대규모 상경투쟁, 11월 18일 APEC회담 저지 10만 농민대회, 11월 21일 30만 농민대회를 거쳐 350만 농민들의 대항쟁이 이어질 것을 밝히다.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아펙바로알기 수업관련 전교조 탄압, 해외 참가지 입국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짐.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보 위주의 교육은 문제없고 비판의 소리를 담은 교육은 문제삼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인 '민주시민의 양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태도"라며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윤이상 선생 10주기 추모법회 열렸고, 같은 시각 북측 묘향산 보현사에서도 선생을 추모하는 남북공동법회가 열렸다고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가 전함.

지난 10월 10일 북녘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통일동이' 윤겨레 양이 통일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 첫 인사를 하는 '통일동이' 환영행사를 가졌음.

04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경기도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 개발예정지구 강제철거와 관련 농성을 해왔던 철거민 등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부당하게 적용, 성낙경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아무개 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 김 아무개씨등 2명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다. 또한 정 아무개씨 등 22명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고 19명에게는 3~4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이 주최한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쟁점 토론회'에서 최근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를 골자로 주한미군의 재편 문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평택범대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에 의해 제기됨,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현황을 주제로 국방부 정종민(대령) 부지확보실장, 박윤식(중령) 대미시설과 시설총괄담당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자 토론회에 참가한 평택 팽성.도두리 지역 주민 10여명과 '평택범대위' 관계자들 '묵언' 시위벌임.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1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남측 상봉단 1진이 숙소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고 언론들이 보도함.

05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6.15청년학생연대 등 주관으로 '주한미군, 우방과 동맹이라는 이름의 점령군. 일제강점 40년 미군주둔 60년 청산을 위한 특별전시회'를 가짐.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주최로 미대사관 부근 정보통신부 앞에서 '부시반대, 미군철수 촉구대회'를 가졌음. 이후 장소를 옮겨 동화면세점 앞에서 반미문화제 '부시난타'를 개최함.

5~6일에 걸쳐 '지리산 전적지와 구례, 곡성, 남원 등 유적지를 찾아서'란 주제로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2005 회원역사기행 다녀오다. 5일

아침 8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대전-진주간 고속도로로 함양까지, 이 곳에서 국도를 따라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실상사 부근 추어탕집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성삼재를 향해 떠난 길의 계곡과 주변 산들은 가을 단풍으로 부타고 있었으며 이르는 곳마다 절경이었음. 뱀사골을 지나 가는 동안의 민가협 어머님들의 노래 솜씨에 감탄사 연발. 차가 막히지 않아 성삼재까지 쉽게 갈 수 있었으나 높이 1400M가 넘는 곳에서부터는 구름이 곧 이슬비가 되고 있었음. 기념사진을 찍고 노고단을 향해 절반쯤 올랐을 때 비가 더욱 굵어져 노고단 가기를 포기하고 성삼재 주차장으로 되돌아와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원들과 만남. 함께 화엄사로 향하는 도중 '시암재'에 잠시 내려 계곡에서 올라오는 흰구름떼의 신비로운 절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화엄사로 달려가다. 기차를 타고 나중에 도착한 나순석회원과 전주의 서은숙회원 가족이 화엄사에서 합류하였고 숙소인 지리산파크에 와 방 배치를 하고 지리산 산채 나물 등이 차려진 저녁식사를 하다. 저녁 8시부터 넓은 방에 모여 노고단에서 예정되어 있던 단촐한 결의 행사를 진행하다. 김호현 운영위원 진행으로 민중의례, 서울 권오헌 대표와 대전 양심수후원회를 대표하여 허찬형선생님의 인사말,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과 장기수 선생님을 대표하여 강 담 선생님의 격려말씀이 있었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나순석 회원과 대전 충남양심수후원회 길용수 사무국장이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공동결의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보안관찰법 폐지'를 함께 읽다. 이어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곧바로 김교영 선생님의 '대성골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추위와 더위, 격전의 상대방과 5년 동안을 지리산에서 견디어낸 치열한 장면들과 대성골에서 크게 희생된 배경, 그러면서도 모든 행동에는 원칙과 그에 따른 전략, 전술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있었음. 마치고 식당으로 내려와 노 혁 회원이 특별히 마련한 전어회 등 푸짐한 안주, 백두산 들쭉술로 모두 건배를 하다. 특히 문상봉, 김동섭, 허찬형, 김영식, 강담 선생님 등 2차 송환 선생님들의 건강과 빠른 송환을 기리다. 이어 이용준 회원 진행으로 즐거운 오락 등 뒷풀이가 12시까지 이어지다.

06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2005 회원역사기행 둘째날. 화엄사를 떠나 섬진강을 따라 피아골 입구, 화계장터를 지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을 답사하다. 주차장에 모두 모여 김교영 선생님으로부터 앞에 보이는 넓은 들 건너 구자봉(767m), 통정대(682m)와 뒷산 형제봉(1115m) 등을 넘나들며 유격활동과 보급투쟁을 다녔던 말씀을 듣다. 압록을 지나 가정역에서 내려 섬진강에 내려가 손에 물을 적시며 초겨울의 포근한 날씨와 강변의 낭만적 순간을 즐기다. 이어 곡성, 남원, 임실을 지나 전주의 이름난 전주비빔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서울로 떠나다. 차 안에서 김은 사무차장 진행으로 이번 개행의 평가시간을 갖다. 민가협 박영옥 어머님, 후원회 송창학 회원, 새로 참여한 이성삼 님, 장기수 선생님으로 김동섭 선생님의 평가말씀과 마지막으로 김교영 선생님의 대체로 무난했다는 총괄평가를 해 주셨음. 이어 이용준 회원 진행으로 열가지 알아맞히기 문제로 기행에서 남은 김, 사과, 토마토, 차, 과자 등으로 상을 주는 재미있는 시간과 송인영 어린이의 수수께끼 풀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6시 양재역에 도착, 떠날 때와 같이 일찍 출발하고 일찍 도착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기행 모두를 마치다.

평택 팽성읍 대추초등학교에서 미군기지 확장바대 팽성대책위 주최로 대동놀이 '우리땅에 생명을' 행사가 진행되다. 국방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며 강제 토지매입 단계로 들어가는 등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이 날 행사는 풍물놀이와 고사, 장승제, 허수아비 세우기, 연날리기, 차전놀이, 사진전, 장터,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들녘문화를 보이면서 미군과 국방부 방침에 맞설 것을 다짐.

07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쌀협상비준안과 유엔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표결촉구를 연계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쌀협상비대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쌀협상비준안과 북한인권 결의안 연계처리 및 살농연정을 중단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3자 협의기구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이규재)가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남전위기구'라고 보도한 동아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라 5일자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함반론보도문은 다음과 같음. '본보 10월 14일자 A3면 '반민전 北 노동당 소속 對南 선전기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는 "범민련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전위기구라는 공안 당국의 사실과 다르며 범민련은 남측의 각계인사가 제안하고 북측이 수용해 결성된 자율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이며 남, 북, 해외가 각기 동수로 구성되는 의결기구를 통해 3자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기구"라고 밝혀 왔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제정일인 12.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인 민주인사 선언'을 바표하고 12.10일 세계인권선언 날까지 민주, 인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보안법 폐지주간을 마련, 12.3일 수도권 집중과 전국동시다발로 촉불집회 형식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 인권의 밤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밝히다.

08

양심수후원회가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영화보기'가 있는 날(매달 두 번째 화요일 오후 7시). 광화문우체국 6층 통일부 북한자료실에서 조국광복 60년 기회시리즈로 작품명은 '민족과 운명'의 제7부 허정순(허정숙) 편 1회분이었음. 1994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작으로 1920년대 일제식민시대를 배경을 공산주의 운동과정에서 외세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자주적인 민족지도자가 요청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었음.

09

Corea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 회담 5차 회의 1단계회의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리다. 의장국인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회담의 중심임무는 약속대 약속,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구현하는 세칙, 방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각 측은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태도로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다. 한편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연구 중단→생산중단→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에 복귀하고 핵포기 절차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남의 핵무기여부사찰, 미국 핵우산 철회를 요구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통신이 보도하다.

경기도 평택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촛불집회(54차)에 다녀오다. 이 날도 평택대책위 김용한 대표 행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등 평택 시민들과 서울에서 내려간 범민련,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 대표 등 70여명이 촛불을 밝히고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의지를 밝히다.

광화문KT건물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주최로 '5차 6자회담과 아펙회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가졌음.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최근 대량살상무기 조달에 관여한 혐의를 붙여 미국 내 북한자산을

동결하였고 인권문제, 위조달러 문제 등 또다시 대대적인 대북 모략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5026, 5027, 5029를 점검, 수정해가는 등 6자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행위는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것은 6자공동성명을 어떻게든 무효화하기 위한 미국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동성명 파기행위"라고 주장했다.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장,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의 규탄 발언이 이어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오는 16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쌀협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부산 아펙(APEC)정상회담을 물리력을 동원하는 사상초유의 농민대투쟁으로 막겠다고 밝힘.

10

민가협 593회 목요집회. 여는 말 조순덕 상임의장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촉구발언과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 부인 임경옥씨의 사례발표 등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중단 촉구 성명서를 유민호 님이 낭독하다.

여의도 국회 앞 농민단체 농성장에서 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단 등은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반대와 식량주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다. 지도신부단 단장 유영일 신부,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 가톨릭농민회 정재돈 회장, 15일째 단식농성중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문경식 전농의장 등의 비준반대 결의발언과 김시영, 박요한 신부가 성명서를 낭독하다. 이보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는 가톨릭 신자 등 8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가톨릭농민회 신부단,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공동집전과 유영일 신부 주례로 식량주권을 위한 미사를 드리다.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선적십자회 백용호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8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에 오다. 공항에는 대한 적십자사 이세웅 부총재와 이종렬 남북협력위원장 등이 마중했음. 조선 적십자회 대표단은 총회가 진행되는 19일까지 서울에 머물 예정임.

후원회소식 169호 최종교정, 기획사에 넘기다.

북한 통일신보는 최근호(11월5일)에서 10여년 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1,2)을 함축하고 여기에 새로운 어휘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언어학뜻풀이중사전'을 지난해 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공동으로 편찬했으며 사전을 편찬하게 된 이유로 "지난 10년간 공화국(북한)에서는 민족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필승의 선군정치로 주체의 강성대국에로 도약해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갱신"된 것을 들었다고 언론이 보도함.

11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의장 성명을 채택하고 폐회되다. 의장 성명에서는 '각 측은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검증 가능한 Corea반도 비핵화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고 Corea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을 재천명하고 제5차 2단계 회의를 빠른 시일안에 열기로 하다. 한편 이북의 김계관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휴회기간에 조미쌍방은 미국의 부당한 금융제재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전재환)이 서울여성프라자에서 10주년 기념식 가졌음.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프라자 2층 세미나실에서는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대학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족 및 관계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7000여건의 민간인학살 사건을 정리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민간인학살'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 6.25이전의 학살 90건 · 보도연맹 예비검속 학살 145건 · 재소자 학살사건 21건 · 부역 혐의자 학살사건 90건 · 제2전선 학살 105건 · 미군에 의한 직접 학살 120건 등 모두 669건을 유형별로 정리하다. 100명 이하 사망자 430건, 100~500명 170건, 500~1000명이 40건, 1000명 이상이 30여건이라고 했음.

12

169호 소식지 발송작업이 있었음. 이날 작업에는 박종린, 김영식, 문상봉 선생님을 뵈러 낙성대 만남의집으로 온 참여연대 통일인권들이 함께 하심.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노동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전재환)' 주최로 '2005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림. 사전마당으로 '비정규차별 철회한마당'에서는 전국비정규노조 연대회의 구권서 대표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발언 등이 있었고 본마당 '민주노총 10주년 및 열사정신계승한마당'에서는 전재환 비대위위원장의 여는말, 제14회 전태일상 수상식, 문경식 전농회장의 연대사, 비정규권리 입법쟁취,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 문화공연이 이어졌음.

13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민주노총은 조합원 등 3만여명(경찰추산 1만 8천명)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계승, 비정규직 권리보장법 쟁취, 신자유주의세계화 반대 2005 전국노동자대회'를 가졌음.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동당 비대위 권영길 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와 가이 라이더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등의 연대사가 있었음. 이어 비정규직 완전철폐, 노사관련 로드맵 철폐, 아펙 정상회의 반대,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등 각종 요구사항의 1000여개 만장을 들고 무대쪽으로 행진하는 상징의식이 있었고 희망새, 우리나라 등 축하공연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종묘공원, 명동성당, 서대문공원, 서울역 광장 등에서는 각 연맹별로 공동집회를 연 뒤 광화문으로 집결, 사전 행사로 비정규권리입법쟁취, 미군기지 확장반대,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보고와 문화공연이 있었음.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해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의 '총파업 투쟁지침 제1호'를 발표함.

국회 앞 농민단체 농성장에서 '가톨릭농민회지도신부단' 등 종교인사 30여명이 '대책없는 쌀협상국회비준동의 반대와 식량주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음.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신자들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톨릭농민회지도신부단,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집전 하에 유영일신부의 주례로 미사를 가졌음.

14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주최로 '부시방한반대 한미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위원장, 문경식 전농의장 등 규탄발언과 이라크 팔루자에서 온 의사 살람 이스마엘 씨의 이라크에서 한국군 철거 요구발언, 인도네시아에서 온 비아 캄파

시안 소속 농민운동가 데로 씨의 개방농정 반대 아펙회의반대 발언 등이 있었음.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가입 단체 등 공동으로 민족민주열사 공원 및 민주화운동정신계승 사업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있었음. 민주공원 건립경과보고,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의 인사말,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등 격려말, 영상 상영에 이어 공동준비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의장으로 권오헌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추천하여 정광훈, 노수희, 박중기, 전재환, 강민조, 조순덕, 정종렬, 진관, 변영식, 이병주 씨 등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박수로 추대하다. 이어 노래패 우리나라의 축가, 강민조 주가협 이사장과 조순덕 민가협 회장의출범선언문 낭독이 있었음.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권오헌 과거사법개정 특위위원장 등 대표들은 국회본관으로 열린우리당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 면담, 과거사법의 빠른 개정을 촉구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명동성당 들머리에 쌀 1000가마를 쌓고 쌀 협상 국회비준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다.

15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20000여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이 함께 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하는 고 정용품 동지 추모,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다. 문경식 의장의 대회사, 민주노동당 권영길 비상대책위대표, 정광훈 민중연대 대표,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위원장, 한농연 서정의 의장, 전국농민연대 정재돈 상임의장 등의 연대사가 잇었고 노래패 청보리사랑의 노래공연, 성조기를 두른 부시가 국회모형을 끌어안고 쌀 가마니를 찌르는 그림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갖다. 이어 농민들은 각종 구호의 만장 50여개 와정용품 씨 영정과 유품이 든 관을 앞세우고 국회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은 농민들의 행진을 닭장차로 가로막고 계속 행진하려는 농민들을 물대포와 방패 등 폭력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다. 경찰은 정리집회를 하려는 여의도 문화공연까지 침탈 폭력으로 시설물을 파괴하며 농민들을 공원에서 내몰다. 농민들은 여의도 대로를 점령하며 폭력 경찰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경찰 닭장차 등이 불태워지다. 100여명이 넘는 농민들이 크게 다쳐 병원에실려갔으며 20여명이 강제 연행되다. 이보다앞서 문화공원에서는 15000여 농민이 모여 고 정용품 동지 추모제가 열렸음.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팽성 대책위, 평통사 등 8개 단체는 '부시방한 및 APEC개최에 즈음한 제74차 반미연합집회'를열다. 홍근수평통사 대표, 평택시 팽성읍 모두2리 이상렬 이장 등의 미군기지확장저지 결의발언이있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라크 파병연장 강요 등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부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하다. 마치고 문정현 신부 등은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폭력 저지로 문 신부는 노상농성에 들어가고평택 시민들 급히 서울로 올라와촉불집회를 열며 농성에 합류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다. 국가인권위는 ·시효배제대상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하고 ·민사소멸시효의 경우 배제 또는 정지가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되 인식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사건에 한하여 특례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 보완 의견을 내다. 국민의정부 시대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 씨가 국정원 감청 부서인 제8국(과학 보안국)산하 감청팀을 운영하면서 R-2와 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이용해, 정,관,제계, 재야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검찰의영장 신청과 서울중앙지법 박철,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밤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수감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가열렸음. 10월 활동보고, 재정보고와2005 회원역사기행보고,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회의 일정 등 보고에 이어 2005회원송년모임(12.18일로 결정)가 권오헌 대표 일본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 초청의건등 기타 여러 안건을 토의하다.

16

올바른 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와 과거사법개정 특위는 열린우리당장영달, 김태룡, 강창일의원을 면담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을정기국회에서 반드시개정할것을 촉구하다. 권오헌, 강미조, 신동숙, 허영춘 상임공동대표와 계승연대 추모연대 사무국활동가들이 함께하다.

부산대 성학원에서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과 부산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여 '부산국제민중포럼'을 열다. 제1부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재고, 민중의 대응을 주제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아카모토 요코 ATTAC JAPAN사무국장, 미국의 반전운동단체 ANSWER의 부대변인 존 비첨,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실장 등의 발제가 있었고 2부에서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회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다. 그 밖에도 부산대 곳곳에서 이주노동자, 21세기 혁명, 여성, 반세계화투쟁과 미디어문화행동, 교육시장화 대응등 주제별 토론이 열림.

한총련 학생 5명이 서울 숭례문을 점거하고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과 APEC을 반대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전원연행됨.

평택 대추초등학교에서 미일 제국주의의아시안 지배와 침략에 대항하는 범아시아 공동행동(AWC)이 주최하고 AWC한국위원회 평통사가 주관하여 '미군기지철거,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하는 국제평화포럼'이 열리다. 포럼에는 AWC일본연락회의 회원25명을 비롯하여 대만 노동인권협회 탕슈(唐曙) 편집위원, 필리핀의 시민단체 'BAYAN의 활동가인 파크 패들런(Mark Padan) 등 동아시아 4개국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함께하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서 한국 필리핀에서의 미군기지 및 미군철거투쟁, 대만해협의 미군군사개입 반대투쟁, 인도네시아의 미군 및 국군지배 강화반대 투쟁 등 동아시아 전역의 반전평화투쟁, 그리고 미국 일본 및 반전평화투쟁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미군철수와 미일의 전쟁반대 투쟁을 아시아태평양 규모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다.

17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약 6km 떨어진 길목에서 '평택범대위'와 '평택 국제평화포럼'에 참가한 일본, 필리핀, 대만 시민단체 활동가 50여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경주역 광장에서는 다함께와 한총련, 파병반대 국민행동 소속 200여명이 '한미정상회담 중단하라', '부시방한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시민 홍보전을 펼쳤으며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공동대표 정광훈), '파병반대국민행동', '평택범대위', '대구경북민중연대' 소속 400여명이 '부시방한 반대, 한미정상회담 결의대회'를 가졌음. 참가자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이라크 점령반대 ·한미FTA반대 ·스크린 쿼터제 축소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북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다.

을사늑약 100년을 맞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일제 침략사를 주제로 한 남북공동사진전을 개최함. 이 사진전은 지난 10월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일제 침략사 기록 사진을 교환해 공동사진전을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서울 국회헌정기념관과 평양 혁명열사박물관에서 동시에 공동사진전 개막식을 열고 '을사5조약 날조 100년에 즈음한 남북해외공동성명'을 발표함.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반인륜적 죄행과 아직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정의와 양심에 도전하는 반역사적 행태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인 운동과 일본이 40여년간 저질러온 침략과 약탈, 그에 따른 민족수난의 실상을 밝혀내고 고발하기 위한 민족적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선언하다. 북에서 보내온 40여 점과 남에서 준비한 40여 점 등 총 80여 점이 전시됨.

부산 서면 밀레오레 앞 도로에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전쟁 반대 아펙 반대 문화제'가 2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다. 민족춤패 '출', 꽃다지, 희망새 등의 노래와 춤, 영상물 상영, 집체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반부시 반아펙회의'를 내용으로 표현해내다. 이날 전야제는 제1부 '부시잡으러가자', 제2부 '아펙을 고발한다', 제3부 '보라! 부시만행을', 제4부 '빈곤과 전쟁을 확대하는 아펙을 반대한다' 등으로 진행되다.

민가협 594회 목요집회. 조순덕 회장의 여는말, 출소 철거민 양심수들의 출소인사, 전철연홍보부장 이영자씨의 결의 발언이 있었음.

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정상회의 첫날, 부산 시내 곳곳에서 부문별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에 돌입한 노동자와 농민 등은 수영로터리에서 만나 수영강변 도로 방향 6차선을 따라 오른쪽에 농민, 왼쪽에 노동자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근 1Km에 이르는 대열을 형성하고 수영강변까지 행진함. 수영강 건너편 APEC 정상회의장, 벡스코가 바라보이는 강변 도로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1호교와 3호교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선봉대가 컨테이너 박스를 끌어내리며 길을 뚫기 위해 싸우는 동안 3호교 부근에서 오후 5시 30분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가졌음. 정광훈 공동대표의 대회사, 존 비첨 ANSWER LA지역 책임자의 연대사 등이 있었음. 비첨 씨는 '아펙, WTO, 이라크 침략 전쟁 등 모든 도전은 모두가 미 제국주의 문제'라고 역설하다. 주최측은 반아펙, 반부시 허수아비를 화형시키는 상징의식을 갖기도 하다. 이보다 앞서 부산 망이 3거리에서는 노동자 3000여명이 모여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고 부산광안 4거리에서는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 음독한 '오추옥 동지 추모식'과 '쌀 개방저지, 아펙반대, 부시방한반대 전국농민대회'를 열다.

19

경북도청 앞에서 유가족과 농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해 음독자살한 경북성주군여성농민회 소속 고 오추옥씨의 영결식이 전국농민장으로 거행됨. 영결식을 마친 후 운구 행열은 정치권의 쌀개방 국회비준 강행을 규탄하기 위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의 지역 사무실로 향해 이곳에서 '오추옥 열사 추모, 한나라당 규탄을 위한 노제'를 지냄.

부산시 해운대 장산역 앞에서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2차 범국민대회 열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해운대 누리마루까지 행진에 나섰지만 경찰병력에 가로 막혀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지고 아펙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발표. 항의서한에서는 '아펙정상들의 부산로드맵'을 빈곤심화와 양극화 확대의 로드맵이라고 규탄하고 '수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민과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는 결의'였다고 항의하다.

20

인천 백석동 천주교 공원 묘지 고 이재문 선생 묘소에서 고인의 유족, 친지, 남민전 관련 옥중 동지들과 사회단체 대표들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고 중덕 이재문 선생 24주기 추도식'을 갖다. 권오헌 진행으로 고인과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에 이어 남민전 최석진 동지의 약력소개, 박석삼 동지의 추도시(전사1) 낭독, 진병호 옛 통민청 동지와 이해결 남민전 동지의 추도사 등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 11월 회원산행. 수락산역에 모여 북쪽 능선길로 올라 내려올때는 계곡으로 다시 수락산역으로 돌아오다. 신동철, 송세영, 변숙현, 김재선, 정인태, 나순석, 나민지, 이용준 등 함께하다.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제종철 열사 추모사업회 주최로 지인과 가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고 제종철 열사의 2주기 추모제, 흉상 제막식 열림. 고 제종철 열사는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의 억울한 한을 풀고,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았음.

대학로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림. 금속, 화학, 자동차, 공공 등 한국노총 소속 24개 산별연맹과 16개 시도지역본부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음. 이용득 위원장의 대회사, 권영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국제자유노련(ICFTU)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등 연대사가 있었고 김준영 비정규연대회의 부천지역 지부의장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대회에서는 ·비정규보호입법 및 특수고용노동3권쟁취 ·노조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자율쟁취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강제적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분쇄 등을 결의하다. 이보다 앞서 철도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5년 정기 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하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쟁의를 가결, 총파업을 예고한바 있음.

21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주최로 '누더기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서우영 사무국장 사회로 권오헌 과거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여는말, 최병모 전 민변 대표의 격려말, 서영선, 허영춘 대표 등의 개정촉구 결의발언, 강민조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범국민위원회는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끝날 때 까지 개정촉구농성을 벌이기로 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비대위'는 여의도 마포대교 인근 한강 둔치 '청소년 광장'에서 '우리농업 살리기 농민총궐기대회'를 가짐. 여성 농민 오추옥씨에 대한 추모식, 본대회로 진행됐으며,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국회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제지에 막힘.

오는 12월1일, 56년전 '반인권.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을 맞아 통일연대가 "냉전시대로 돌아가려는 색깔공세 중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시작함.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오는 12월 11일 평택에서 열리는 '2차 평화대행진 종교인 120인 준비위원회'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을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힘.

22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6.13여중생 촛불 자주평화사업회 출범식을

갖다. 이관복 선생, 김원웅 의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등 격려말에 이어 영상물로 자주평화사업회 출범식을 대신하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6.13여중생 촛불 자주평화사업회, 권영길, 임종인, 김원웅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효순, 미선 촛불행진 3주년 맞이 국회토론회 '여중생 투쟁 3년의 의미와 불평등한 한미 SOFA전면 개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열리다. 김용환 평택 대책위 대표 사회로 이용대 자주평화사업회 공동대표, 권정효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등의 발제와 이소희 주미본 정책실장,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평화국장,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다.

국회 앞에서 직업훈련 교사들과, 직업상담사로 이뤄진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철폐, 일방적 조직개편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 열림. 총파업 상경투쟁 30일차를 맞은 산비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산비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다지며 규탄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삭발식을 진행했고, 삭발식이 끝나자 상징의식으로 전 조합원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국회로 향했으나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결국 임세병 위원장을 비롯해 남성조합원과 여성조합원 등 1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조합원 4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됨.

'쌀협상 비준안 반대'를 요구하는 각 지역 농민들의 투쟁과 분노가 높아짐. 전농 부산경남도연맹 농민 2명 한나라당 경남도당 사무실을 기습점거, 150여명의 농민들도 바깥에서 나락을 불태우면서 약식 농민대회를 개최. 정읍에서는 오전 10시 30분경 정읍농민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40여명 김원기 국회의장 정읍 사무실을 기습점거하고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반대를 촉구하며 농성. '우리쌀 지키기 전북도민운동본부' 소속 23개 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 고흥과 보성 농민 50여명 신중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나락을 태우며 시위를 벌였으며 신 의원으로부터 '쌀협상 비준문제를 최소 12월 홍콩 DDA협상 이후에 처리할 것을 공개 천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정선군 농민회원 7명은 영월에 있는 이광재 의원 사무실에서 농성, 충남 청양에서는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강원 철원과 양구는 박세현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쌀비준안 처리 반대를 촉구함. 전남 장흥군 김효석 의원 사무실, 경북 안동 권오을 의원 사무실, 경북 구미시 김성조, 김태환 의원 사무실, 최경환의원(경산시), 김광원 의원(울진군), 최경환 의원(청도군), 전북 익산시 조배숙 의원, 한병도 의원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임. 이밖에도 이규택의원(여주, 이천) 사무실과 이낙연 의원(함평), 김동철 의원(광주), 우윤근 의원(구례, 광양), 유선호 의원(영암), 주승용 의원(여수) 등 여야 의원 사무실 앞에서도 농민들의 투쟁이 벌어짐.

한농연전북도연합회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각료회의때까지천막농성에 들어감.

농민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 농업.농민을 걱정하는 천주교 사제단(천주교사제단)'은 전국 10개 교구의 신부와 100여명의 신자가 모인 가운데, 미사를 올리고 명동으로 침묵행진을 벌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가로막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명동성당 앞 시국미사와천막농성을 23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함.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단일연대연합체를 구성하게 될 주요단체들은 이 연합체 건설이 조직문제와 진보운동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적어도 12월 하순 부터 내년 1월 경 이에 대한 내부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청 주관, 통일연대 주최로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열림. 통일.민중운동 진영 인사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민중연대 정대연 정책실장이 발제를,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실장,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손미희 부위원장, 서총련 김노진 의장, 민주노동당 김창현 전 사무총장이 토론을 맡음.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단일연대연합체를 구성하게 될 주요단체들은 이 연합체 건설이 조직문제와 진보운동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적어도 12월 하순 부터 내년 1월 경 이에 대한 내부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힘.

23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오기태(75세. 본명 장재필) 선생님께서 급성폐렴으로 전북대병원응급실에 입원하심. 호흡량이 적고 매우 위독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로 치료받고 계심.

쌀협상 비준안이 재석 223명중 139명이 찬성,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평택범대위 대표자들은 중토위의 평택미군기지확장에 정부지중 국방부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122만평에 대한 강제수용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강제수용결정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한국토지공사 2층 중토위사무실과 정문앞 노상에서 약 80여명이 장기간 농성을 진행. 경찰은 농성자를 강제해산하면서 18명을 불법강제연행하다.

전농 경남도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던 경남 의령 농민 진성규(48세)씨가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분개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다리 30%에 3도화상, 팔 10%에 2-3도 화상, 안면화상을 입었음.

24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했던 충남 보령 전용철 농민이 이날 오전 7시 20분 뇌출혈로 숨지다. 전용철 농민은 농민대회 당일 서울시경 1기동대 소속 전경들에 의해 심한 타격을 받고 쓰러져 있다가 동료 농민에 의해 구조되어 보령 집으로 내려갔으나 17일부터 몸을 가누지 못하여 보령병원응급실에서 CT촬영 한결과 심한 뇌출혈로 판명, 긴급히 충남대병원으로 옮겨 1차 수술을 받고 23일 2차 수술을 받았으나 24일 보령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두다. 아산 보령병원에서 부검결과 '두부손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판정하다. 고인의 시신은 이 날 밤 경찰의 제지를 뚫고 서울대 병원 장례예식장으로 옮겨 안치되다.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이 24~25일에 걸쳐 이루어져 남측 40가족 347명과 북측 39가족 214명이 화상상봉을 하다.

595회 민가협 목요집회.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권오헌 공동대표의 쌀협상 비준안 등 살농정책 규탄발언, 2차 송환 대상자이신 김영식 노인의 송환촉구발언이 있었음.

25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는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와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등을 다녀오다. (별도기사 보심)

59개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농업의 근본적 희생과 故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시킴. 대책위는 앞으로 매일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각지 마을회관에서 쌀비준처리 규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힘. 또한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 쌀 개방 국회비준 무효와 종정 책임자 처벌 · 노무현 대통령 사과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규탄 · 전용철 농민 타살 진상규명 · 경찰청장, 행자부장관 파면 · 11.15 진압 당시 책임자 처벌 · 서울 제1기동대 해체 등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결의하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서대문의 한 호프집에서 총 3부 4권, 2천여 쪽으로 제작된 '과거사청산운동백서 발간 기념식'을 가지고 자축하며 후원금을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함. 백서는 △1부(1권) 과거청산운동의 현재, 개념, 과제 △2부(1권) 과거청산운동의 이론, 역사, 현실 △3부(2권) 과거청산 관련 자료 색인으로 구성됐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및 친일반민족행위, 한국전쟁전후 집단학살, 의문사와 국가폭력 등 제반 과제들을 다루고 있음.

26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농민, 시민사회단체 인사 600여명이 모여 전용철 농민을 추모하고 쌀 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다. 이날 촛불집회는 전용철 농민의 고향 충남 보령시 등 전국 60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림.

평택역 광장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기지확장반대 시민촛불문화제' 열림. 촛불문화제에서는 두레풍물보존회의 풍물공연, 미군기지확장반대 싸움을 형상한 경기지역 노동자들의 카드섹션, 학생들의 춤, 평택지역 어린이 20여명의 '천리길' 합창, 마지막 공연으로 팽성주민, 평택시민들의 100인 합창이 이어짐. 촛불문화제에 앞서 평택역 광장에서 만화전과 사진전, 연등만들기 행사가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경기본부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미군기지확반대'를 주제로 사전집회를 가지고 촛불집회에 함께 함.

27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故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확보된 증언과 구타당한 전용철 씨가 농민회원들에 의해 이송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고 전용철 열사 추모촛불집회'가 열림.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 영안실로 향하자 경찰이 광화문역 7번출구를 봉쇄하고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와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아수라장을 만듬. 경찰의 강경진압에 완강히 맞선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대열을 정렬시키고 종로1가에서 서울대병원까지 1차선을 점거한 채 뛰어서 이동하며 "살인정권 퇴진하라", "전용철을 살려내라"등 구호를 외쳤으며, 준비한 선전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함. 서울대병원에서 단체 조문.

28

'전북대 중환자실에서 급성폐렴으로 투병중인 오기태 선생님 문병했음(권오헌 대표) 익산에서 윤성남 선생님을 만나 함께 오후 8시 면회시간에 문일승 선생님, 이강실 목사님, 일꾼쉼터 김진상 실장님 등 함께 했음. 오기태 선생님은 이날 6일째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고 있으며 사진상의 폐렴증상은 조금도 좋아지질 않고 있었음. 담당의사는 회복된다해도 오래 걸릴 것이며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소견을 말했음.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인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가 경찰청장의 사퇴, 지난 15일 농민대회 당시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현장 책임자의 구속과 진압 부대였던 1기동대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짐.

서울대병원 영안실 4호에서 고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종교계 기자회견 열림. 고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농업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종교인 일동은 △고 전용철 열사 사망사건 진실 고백, 폭력진압 책임자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쌀협상 국회비준에 동의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 △민중생존권 보장, 신자유주의 정책 포기 등 4가지를 정부에 요구했음.

29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권오창, 권오헌, 오종렬 대표와 이태호, 정대연 집행간부 등은 국회 본관으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을 면담.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반대와 즉각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다.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7층강당에서 KAL858기 실종자 18주기 추모제를 가짐. 추모제 후 대책위 관계자와 가족회 회원 50여 명은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앞으로 행진했으나 경찰 병력에 막힘. 이어 국정원 앞에서 실종자 115명의 이름을 부르며 115배를 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침.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방예산삭감과 파병연장동의안 처리거부를 요구하는 '52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짐. 전년대비 9.8% 증액한 2조8천여억 원의 2006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진행 중으로, 참가자들은 국회 예결위원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더 이상의 전력증강은 북한 및 주변국을 자극할 뿐이므로 전력증강계획을 철회하고 국방비를 삭감하라고 요구함.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을 열다. 참가자들은 보훈처의 민주유공자법의 제정 반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법 제정을 촉구함. 촉구대회를 마친 이들은 요구서한을 국가보훈처에 접수시킴.

30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 등은 서울 장충동 분도 빌딩에서 '북인권문제 대안적 접근 워크샵'을 갖고 주제별 토론을 벌이다. 토론을 거쳐 참가자들은 '북체제 전환의 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끊임없이 북체제를 위협해왔다'며 '인민의 자결권을 저해하는 외부의 압력이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언하다.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협, 민가협, 전국연합, 통일연대, 실천연대, 민화련, 범남본, 통일광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 및 원로 40여명이 모여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통일원로 시국 기자회견'을 가짐.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민들의 고통은 바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과 미국의 정책을 앞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반민중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규정했으며 "역사발전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엄중한 시기"에 "미국의 지배와예속을 끝장내자"고 당부하였음.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모여 '농업의 근본적 회생! 고 전용철 농민살해 책임자 처벌! 노무현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감.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 전용철 농민 살해사건의 현장진압책임자 이종무 기동단장 즉각 구속처벌 △경찰청장, 행자부장관 파면 △노무현대통령 대국민 사과, 사죄 △살인진압부대 제1기동대 즉각 해체할 것과 쌀협상 국회비준을 무효화하고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장하였음.